

아시아 영화 예술의 과거·현재·미래 조망

●오는 14일 'ACC 필름&비디오 포럼'

아시아 영화 예술의 현재를 새롭게 상상하고 그 미래를 짚어볼 수 있는 포럼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14일 문화정보원 극장3에서 'ACC 필름&비디오'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ACC는 어떤 영화를 상영하는가: 익스팬디드? 미디어적 전회?'를 주제로 열린다.

영화·시각예술 전문가 참여...공개 토론의 장 또 실험영화·비디오아트 연구 가치 재맥락화

'익스팬디드(Expanded)'는 영화의 본질 탐구와 영화 형식의 실험을 지향하고 다큐멘터리와 실험영화 장르의 경계선을 다시 그리는 '확장영화'의 실천을 의미한다.

'미디어적 전회(Mediativ turn)'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개별 간 접촉뿐 아니라 전지구적 의사소통 과정 등 인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상 미디어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촉발된 변혁을 뜻한다.

이번 'ACC 필름&비디오' 포럼은 오늘날 영화의 확장된 감각(익스팬디드)을 분석하고 세계를 달리 표현하는 수단(미디어적 전회)으로서 일상 공간에서 끊임없이 마주치는 무빙 이미지를 살피는 자리다.

포럼에는 광영빈 예술매체학자, 김소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김은희 큐레이터, 김지훈 중앙대 교수, 서현석 연세대 교수, 신은실 영화평론가, 유운성 영화평론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ACC의 아시아 실험영화

와 비디오아트에 관한 연구 가치를 재맥락화하고 무빙 이미지와 스크린을 둘러싼 새로운 지형을 탐색할 예정이다.

포럼은 ▲김지하 ACC 학예연구관 '비제도적 영화들의 제도적 실천' ▲김소영 '트렌스 아시아를 새롭게 매핑하다: 유령론의 물기와 화광' ▲유운성 '동시대적 기획이 지역의 관객들과 만나는 것' ▲신은실 'ACC의 영화 연구와 실천에 부치는 한 제안' ▲광영빈 '(탈)압축된 전통의 기억과 청산, 또는 (재)창안: 사라지(지) 않는 매개로서의 아시아/영화' ▲서현석 '탈-확장영화의 확장성, 혹은 '다(차)원'적 상상의 영화적 환원' ▲김지훈 '1990년대 이후 영화와 무빙 이미지의 전사: 영화 전시의 세 모델' ▲김은희 '블랙 박스와 화이트 큐브 사이: 현대미술과 영화의 만남' 이 순서대로 진행된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발제와 종합 토론 내용은 추후 자료집과 ACC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또 내년 10주년을 맞이하는 ACC의 '실험영화 랩' 전시 콘텐츠로도 각색해 선보일 예정이다.

'ACC 필름&비디오' 포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희망자는 ACC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

이강현 전당장은 "내년 개관 10주년을 맞는 ACC가 '필름&비디오 포럼'을 통해 영화 실험과 연구 가치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면서 "이번 포럼이 동시대 문화예술 선도 기관으로서

아시아 영화 가치를 국내외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CC는 지난 9년 간 아시아의 서사를 매개하는 매체로 영화에 주목해왔다. 2018년부터 진행해온 영화 상영 프로그램 'ACC 시네마테크'에서는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표방하는 아시아 영화를 꾸준히 소개해 왔다. 아울러 영화적 역량과 표현 가능성을 실험하고 지원하는 '실험영화 랩'을 운영하면서 영화 예술의 미래와 아시아 영화의 가치를 모색했다. /최명진 기자

"치앙마이 문화상품 37종 만나보세요~"

ACC재단 문화상품점서 '두들락 치앙마이' 쇼케이스

"국내 처음으로 선보이는 태국 치앙마이의 직물 공예 문화상품 만나보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태국 치앙마이의 전통 공예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상품과 대표 기관을 소개하는 '두들락(DO! DLAC) 치앙마이 2024' 쇼케이스를 오는 12월까지 ACC 문화상품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두들락(DO! DLAC)'은 ACC 문화상품 브랜드 '들락 DLAC'의 프로젝트 기반 활동으로, 아시아가 협력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경험을 제안한다.

'두들락' 첫 쇼케이스로 선보이는 태국 치앙마이는 2017년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로 선정됐다. 오랜 전통과 장인정신에 창의적 디자인과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담아가고자 하는 공예가와 디자이너는 물론 관련 문화 기관 및 스튜디오, 특화 상품점도 많다.

이번 쇼케이스에는 치앙마이 대표 복합문화공간인 '캄 빌리지'와 전통 직



물 염색 공예 상품을 선보이는 '슬로우 스티치 스튜디오', 태국 북부지역 5개 부족(카렌·몽·라후·아카·리수)의 전통 공예를 보존하고 소개하는 '파이브 트라이브 페어 트레이드(Five Tribes Fair Trade)'가 참여한다.

ACC재단은 이들 참여 기관과 협업해 제작한 3개 상품을 비롯해 치앙마이의 전통 직물·무늬·천연염색·소수 민족 패턴 등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제품 총 37종을 선보인다.

/최명진 기자



독특하고 아름다운 예술세계로의 순례

오수경 개인전 '필그림'...29일까지 브리티컬러리

순례자. 성지(聖地)를 방문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양화가 오수경의 초대 개인전 '필그림-순례자'가 오는 29일까지 브리티컬러리(서구 대남대로 440)에서 열린다.

전시에서는 2022년 광주롯데갤러리 '우서일절' 전시 이후 자신의 미술세계를 다시 돌아본 작가가 중국의 둔황 지대 등을 답사하며 영감을 얻어 제작한 '필그림' 연작 등 50점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는 '서양화'로 그림을 시작한 만큼 유럽 중심적 색채를 탈피해 독특한 자신의 조형언어를 찾고자 했다. 이러한 생각은 서아시아 지역 문화로까지

이러었다. 그는 작품 설계와 제작 과정이 실크로드에서 일어났던 탈지역적 교류를 재연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작품 속에 투영시켰다.

그중 서유기의 모델인 현장법사는 당나라 수도 장안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인도까지 순례길을 걷은 인물이다. 그 발자취에 작가의 영감이 더해지며 새롭고 독특한 작품세계가 펼쳐졌다.

작가는 "현장법사가 실크로드를 통해 독특하고 아름다운 예술이 있는 곳을 순례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듯 이를 바탕으로 작업을 펼쳐내고자 했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동계 국악교육 교원직무연수 참가자 모집

남도국악원, 전국 유·초·중·특수학교 교원 대상

국립남도국악원이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2025 동계 국악교육 교원직무연수'에 참여할 교원을 선착순 모집한다. 국악교육 교원직무연수는 전국 교

원을 대상으로 전통예술의 교육 환경을 강화하고자 남도국악원에서 매년 운영하는 사업이다. 연수는 내년 1월13일부터 17일까지 4

박5일(30시간) 동안 국악 실기와 감상, 체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실기교육 능력 향상을 위해 공통과목으로 장구반주법, 사물놀이와 각 지역 민요를 배울 수 있으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배우는 강강술래가 예정돼 있다. 선택과목으로 '단소'와 '소금'을 추가해 교과목 설치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예연구관 해설과 국악연주단 공연으로 진행될 '렉터 콘서트'는 국립남도국악원의 '해외동포 및 국악단체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외국인들과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편성됐다.

연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장악과(061-540-404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명진 기자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환경주일 목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2022. 4. 26

